

월요논단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소득주도성장은 대기업의 배반에서 출발한 것=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폐지론까지 들고 일어섰다. 국민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폐지하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되묻고 있다. 야당과 일부 학자, 국민들 주장처럼 과거로 회귀, 즉 수출주도, 대기업 주도로 가자는 말인가. 지지하는 바와 같이 수출대기업중심 경제정책은 불균형 전략이라고도 한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이 흔히 쓰는 한쪽 밑에 두기 전략이다.

자원과 자본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

## 그럼 소득주도성장 말고 대안은 있는가

라는 대기업만 밀어주는 불균형전략을 선택하였다. 정부는 대기업을 밀어주기 위하여 오랫동안 1차 산업을 희생시키고, 임금 상승을 통제하고, 수출로 인한 손해까지 보전해 주었다.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저리로 대출 등 금융혜택을 받았다. 이도 모자라서 수출은행을 설립하여 수출로 인한 손해를 보충해주었고, 외국에게 국가가 보증까지 해주었다. 한국의 대기업은 망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 받았다. 국민들은 지금도 에어컨 전기료가 값이 나서 참고 참으면서 폭염을 견디고 있지만 대기업은 산업용이라는 미명하에 전기료가 지 지원받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성장이 국민과 1차 산업, 중소기업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외면하고 심지어 무시하고 있다. 지독한 배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은 성장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는 고사하고 지식과 손주를 위하여 비상장 기

업을 만든 후에 일감을 모두 이들에게 몰아주고 있다. 이도 모자라서 이들 자식과 손주들이 국민과 중소기업을 향한 기성천외의 갑질은 수십 번 해외 토크 갑이 되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심판받는다는 각오로 추진해야=한국의 최대 경제문제 가 대기업 수출중심으로 나타난 기업 저변의 취약, 대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 경쟁, 양극화, 중소기업의 취약 등의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도 역시 이름만 달랐지 대기업 억제, 소득분배정책을 추진해 왔다. 오죽했으면 이들 정부들도 대기업의 갑질을 시정하기 위하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10대 대기업 회장 대부분을 법정에 세웠고, 일부는 교도소까지 집어넣었는가. 그럼에도 대기업은 반성언커녕 갑질은 여전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부면 이를 보편서 수술의 칼을 꺼내 들지 않을 정부가 있는가.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수술 칼을 꺼내다가 대기업의 지원받는 언론과 단체들이 말리면 언론 칼을 집어넣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과 대기업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추진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10대 경제대국을 외치면서 세계 평균 정도의 임금을 최저 임금으로 정한 것을 경제의 큰 실책이라고 질타하는 대기업이 후원하는 가짜의 목소리에 정면 도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칼을 집어놓고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기업공화국, 심지어 삼성공화국이 된다는 국민 다수의 우려 목소리와 역사의 부름에 응하여 소득주도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평가받겠다는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따르겠다는 각오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것 같다.

## 열린마당

### 소방시설 근처는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김은탁**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화재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초기 화재진압은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시간이 지연되어 큰 화재로 번진다는 사례를 종종 들을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

먼저 소방시설 관련 주·정차 금지 장소가 새롭게 규정됐는데 '소방기본법' 상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소방용수시설이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소화전은 소화를 위해 상수도 급수관에 설치된 소

화호스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 급수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철제탑, 저수조는 물을 저축하는 설비다.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해 화재를 집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다. 이와 같은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 중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변 5m 이내 장소 또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로 새롭게 규정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은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알아본 소방시설 주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에 대한 신고 등이 있고 현장에서 위반자를 확인한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가능하다. 소방시설 주변에서의 주·정차 급지는 성숙한 시민의식 하에서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단속 가능하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해 단속도 피하고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발미도 없애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뉴스-in

### “‘보훈특별자치도’ 제주 만들 것”

원 지사 호국영웅 예우 강조

○…원희룡 제주지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혀 눈길. 원 지사는 지난 1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 제18회 제주 해병대의 날 행사에서 “해병대 3기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투철한 희생 정신을 보여준 한규택 하사를 비롯한 제주출신 호국영웅 강승우 중위, 고태문 대위 등 3인의 명예도로 표지석 설치를 지난해 마무리했다”며 “‘보훈특별자치도’ 제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

이어 “앞으로도 제주 곳곳에 새겨진 호국안보 성지를 발굴·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 고대리지사

중여성 실종 하루 만에 발견

○…제주에 관광객 방문했다 실종된 30대 중국인 여성이 하루 만에 발견되는 해프닝이 발생.

지난달 30일 오전 1시 중국인 관광객 장모(32·여)씨가 제주 도두봉 인근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

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다음날 스스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면서 소재가 파악.

일각에서는 올해 제주에서 강력범죄와 실종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단순 실종사건에도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송은범기자

제주YWCA 사과문 발표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기관인 제주YWCA가 부설기관인 통합상담소가 주관한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강사와 담당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발표.

제주YWCA는 지난달 31일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교육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수강생들의 항의에 담당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사과.

이와관련 제주시는 “제주YWCA에 경위서를 받고 기관 경고와 더불어 추후 교육 개설 시 해당 강사를 교체해달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언급. 전선희기자

## 사설

### 관광시장 다변화, 베트남시장서부터…

지난해 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흥미로운 보도를 내놔다. 2017년 3분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개인별 씀씀이는 베트남 관광객이 가장 컸다는 내용이다. 같은 기간 베트남 관광객은 2만54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여행 목적으로 출국한 베트남인은 650만명에 달한다. 한 해 전인 2015년에 비해 15% 가량 늘었다. 이들의 여행경비는 70억~80억 달러(7조8000억~8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까지 포함하면 여행객 수·여행경비 모두 이를 훌쩍 웃돌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포스트 차이나’로 떠올랐다. 올해 1/4분기엔 7.3%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총인구는 약 1억명, 이 가운데 노동인구는 5300만명에 이른다. 경제뿐만 아니라 관광시장에서도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이유이다. 더욱이 교류가 확대되고, 항공노선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도 2014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인천시가 베트남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 3월 ‘하노이 박람회(VITM) 2018’에 참가했다. 같은 달 초엔 호치민시에서 ‘인천관광 단독 로드쇼’를 통해 현지 주요 여행사 5곳과 ‘인천공동상품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4·8월 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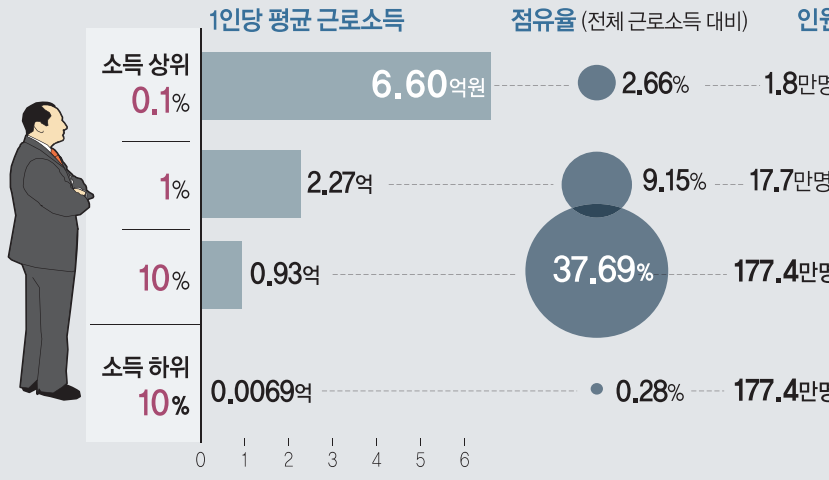
엔 베트남 호치민 방송국 HTTV1에서 ‘디스커버리 인천’이란 제목의 광고를 내보냈다. 울산시는 지난 7월 베트남 국영TV 인기 프로그램인 ‘여행일기’ 촬영을 유치, 45분 분량의 ‘울산일기’를 방영하는 등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지난 4월 하노이·호치민에서 ‘경기 마이스 로드쇼’를 개최했다. 서울·제주를 선호하는 베트남 기업 단체 관광객을 경기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이다.

관광시장 다변화는 제주관광의 숙명적 과제다.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을 넘어서지 못하면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얼마 전 제주를 엄습했던 ‘사드 후폭풍’이 재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 시장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얼마 전부터 베트남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베트남 남자축구 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에 진출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면서다. 최근 2주 동안 검색된 베트남발(發) 한국행 항공권 검색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가량 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업무협약·관광홍보관 설치 같은 고루한 대책으로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을 선도할 수 없다. 오히려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성마저 다분하다. 현지 분위기를 읽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 그래픽 뉴스

###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 비교

2016년 귀속연도 총 근로소득 기준



자료/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국제청

※ 국제청 신고 근로소득금액 기준

연암뉴스

## 부고

**홍성국(제주특별자치도청)**  
어머니 **인동장씨 순자(향년 88세)**  
께서 2018년 9월 1일 03시 31분 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8년 9월 3일(월)  
▶발인일시: 2018년 9월 4일(화)  
오전 6시 2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자: 양지공원

남 편 **홍한표**  
아 들 **홍성국** 며느리 **양은정**  
(숙)성문 **김복순**  
성전 **권은주**  
성화 **최수연**  
딸 **홍성훈** 사 위 **김승안**  
성렬 **김영일**  
금옥 **김진규**

※ 연락처 : **홍성국 010-3698-7747**  
**홍성전 010-8660-1096**  
**홍성화 010-6320-4078**  
**김승안 010-3698-4633**  
부민장례식장 742-5000

##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문호(향년 8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릴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8년 9월 3일

부 인 **김장순(문순)**  
아 들 **고상진** 며느리 **한은희**  
**용진** 최화진  
**경진** 강향선  
딸 **고정선**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5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 피 고 인 오 제 선

위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8. 31.

판사 제갈창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7899**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곡식물의학회 SCI A급 등록**

**대한병원 임상결과 일 50취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8887, 010-5755-8887, 성담 010-2691-4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 드론국가자격증

### "4차 산업혁명 최고의 아이템"

#### ■ 드론의 활용 분야

- 항공방제 및 직파제, 토지 단위별 토질조사 등
- 화재와 재난 감시, 택배 운송, 우편 배송, 의료용품 수송
- 광고 촬영, 항공감시, 항공측량, 3D 모델제작, 지질조사, 주차감시, 산림조사, 각종 시설물 진단 등
- RC스포츠를 통한 가족레저문화 발전
- 드론 붓 운송 간부, 드론운용 병사 모집 확대

#### ■ 드론올레의 특징

- |              |             |                      |                |
|--------------|-------------|----------------------|----------------|
| 비행경력 20시간 발급 | 실내 시뮬레이션 운영 | 태(도시)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시행 | 넓고 푸른 실기시험장 운영 |
|--------------|-------------|----------------------|----------------|
- 국내 최고의 안전한 교육 장비 운영
  - 실기 평가 프로그램 운영
  - 필기 교재 및 시험문제 제공

#### 지도조종사 과정 특별 모집 0명

- 비행경력 80시간 이상 발급/실내 시뮬레이션 운영
- 지도조종사과정 프로그램 운영
- 드론 제작/세팅교육
- 드론 학과 필기시험지 만들기
- 로그지 작성과 로그북 발행
- 사용사업, 사업계획서, 사고대응 매뉴얼 만들기
- 실기시험 제정과 평가방법

상시반 11 교육

국가자격증취득과정 00명 모집

지도조종사(교관)과정 0명 모집

**드론올레**  
**교육문의 010-5433-9603**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836(조각공원 옆)

종사업등록번호 제18-제주-2017-20-02호

## 감귤요목

**유라실생 2,3년생**

**유라(극조생) 6년생**

**감평(레드향) 2,3,4,5,6년생**

**황금향 5년생**

**천혜향 2,3,4년생**

**한라봉 M16 6년생**

## 한림종묘

**010-3690-2453**